‘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로 일상의 안전, 우리가 지켜요!

글 정수희 **사진** 김지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동시에 진중하면서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안전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도 들린다. 4월 24일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송사옥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의 현장이다.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쉽게 안전교육을 체험한 시간이었다.

선선한 바람이 흩날리던 4월 24일, 오전부터 충북 청주에 소재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송사옥 옥외주차장에는 많은 사람으로 가득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참여를 위해 청주지역의 나래유치원, 오창엘리트어린이집, 시온어린이집, 사직유치원 등 300여 명의 어린이와 지역주민 100여 명이 함께한 것.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대응 역량 강화와 동일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보건문화 확산이 강조되면서 활성화된 범국민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온 국민이 일상의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운영하는 체험교육이다.

어린이 대상 안전사고 대응 17개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의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성인으로 구분해 참여 대상별 필수 프로그램 10종과 기관협업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어린이 대상 필수 프로그램 10종에는 완강기, 소화기, 비상구 대피, 지진·화재 대피, 감염병 예방, 킥보드, 재난 예방, 수상, 식품, 교통안전 등이 있으며 성인 대상 필수 프로그램으로 완강기, 소화기, 비상구 대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개인용이동장치(PM), 다중밀집, 중독, 수상, 추락 안전 등 관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송사옥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어린이 대상 안전체험교실을 열고 완강기, 소화기, 비상구 대피, 수상 안전 등 필수 프로그램과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인 보행안전, 킥보드안전, 감염병 예방, 식품안전, 화재대피 미로탈출체험, 항공안전, 추락안전(수직구조대) 등 17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협회는 자체 체험형 교육시설을 활용해 개인보호구, 국소배기실습체험, 가상 4D큐브 체험 등 성인 대상 13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했다.

직접 안전핀 제거로 안전교육 효과 높여

본격적으로 안전체험교실이 시작되자 안전교육 지도자들과 안전 스태프는 곳곳에서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을 시작했다. 1층 대강의장에서는 보행안전과 킥보드안전을 연계해 교육했다. 횡단보도 보행안전 수칙교육을 마친 후 올바른 킥보드 사용법 및 타는 법, 보호장구 착용법,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 등 습득 후 직접 킥보드를 타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로 어린이를 비롯한 참여 주민들은 안전모와 소방 방화복을 착용하고 교육용 연기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 등 소화기 사용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체험교실 교육에 참여한 주민은 “처음으로 소화기 안전핀을 제거하고 분사해 보았다.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과 주의사항까지 몸소 체험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알차게 준비되어 많은 보탬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한 물놀이 방법과 구명조끼 착용 후

에어바운스 활용한 선박 탈출 체험 교육인 수상안전, 항공기 내 안전수칙 및 상황별 대처 방법과 사고 발생 시 에어바운스 통한 항공 탈출 체험 등 항공안전교육체험도 많은 어린이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완강기, 다중밀집 시설안전, 식품안전, 재난안전교육 등도 진행하며 안전교육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안전 수칙과 같은 지식 습득뿐 아니라 안전체험과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직접 보고 듣고 말하며, 손으로 만지고, 발로 뛰며 체험한 교육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수히 많은 일상 속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 존재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에 체계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모든 국민이 안전한 그날까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